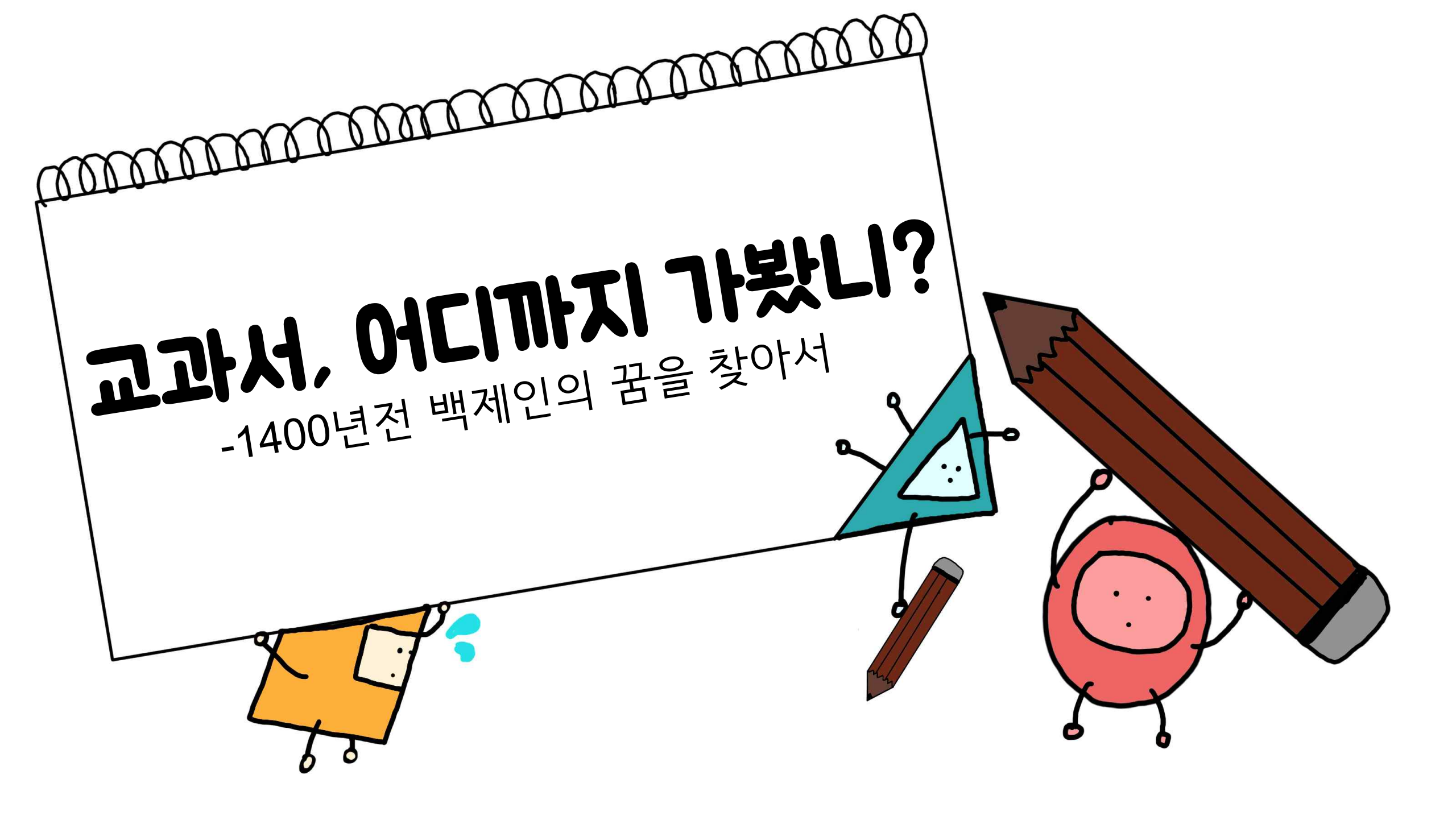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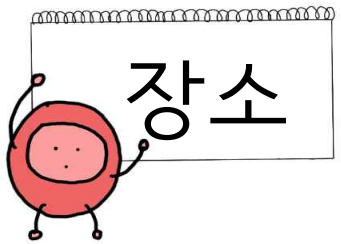
교과서, 어디까지 가봤니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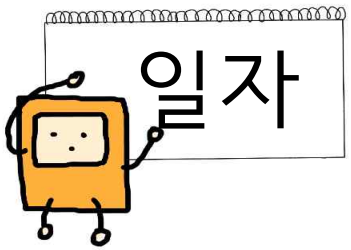
-1400년전 백제인의 꿈을 찾아서



백제버스
답사 보고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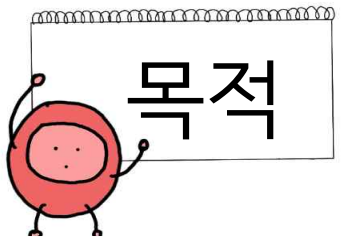
충청남도 부여시



2022년 5월 14일~15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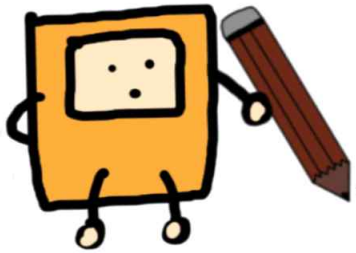
팀명 : 백제버스
팀장 : 6학년 김OO
팀원 : 3학년 김OO, 아빠 김OO, 엄마 OO진

백제버스
답사 보고서



-국립부여박물관을 방문하여 여러 백제 유물을 만나고 <백제금동대향로>에 깃든 백제인의 기술과 이상을 알아본다.

-정림사지 5층 석탑을 통해 백제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낀다.



부릉부릉~백제버스의 일정

첫째날

국립부여박물관
백제문화단지
궁남지

둘째날

정림사지
(정림사지 5층석탑)
부소산성

사전 조사 자료-부여는?

충남 부여의 옛 이름은 ‘사비’이다. 백제는 서기 538년 성왕 16년부터 의자왕 20년까지 123년간 이 곳 사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한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국립부여박물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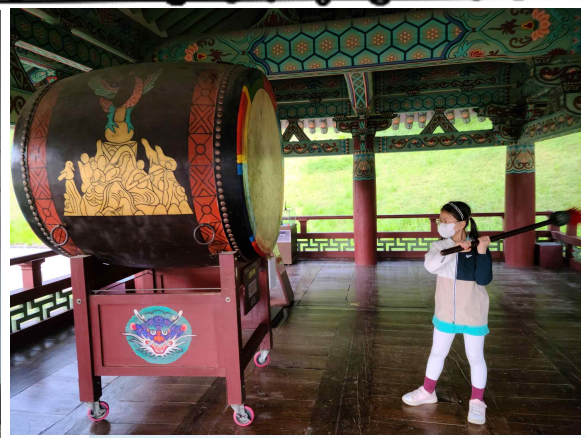
국립부여박물관에는 백제 문화가 꽃피었던 사비시기의 여러가지 문화재들이 전시되어 있다.
그리고 백제의 문양과 백제금동대향로에 관한 영상미디어쇼도 흥미로웠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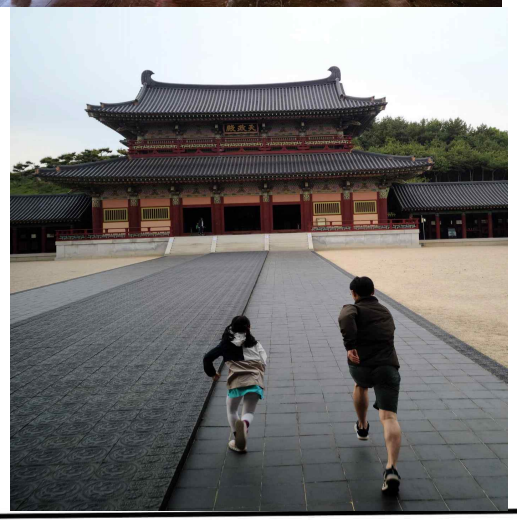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백제금동대향로

이번 부여여행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백제금동대향로였다. 교과서에서 본 유물을 직접 보니 신기했고 그 화려함과 정교함은 압도적이었다. 백제의 멋과 우수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



백제문화단지

백제문화단지는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조성된 역사테마파크이다. 백제사비궁과 능사, 생활문화마을 등이 재현되어 있다. 사비시대 백제의 모습을 보고, 여러가지 체험을 해 볼 수 있어 알찬 시간이었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궁남지

궁남지는 서동화 선화공주의 사랑이야기, 서동요의 전설이 깃든 인공정원이다. 다양한 연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곳이나 야간개장을 이용한 우리는 너무 깜깜해서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다. 밝을 때 가보기를 추천한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정림사지

정림사지는 백제 사비시대에 건립된 절이다. 정림사지5층 석탑은 현존하는 석탑 중 가장 오랜된 탑이라고 한다.
정림사지박물관에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 백제불교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를 타고 달리다

부소산성

부소산성은 백제사비시대 왕궁의 산성이다. 죽음으로 절개를 지킨 백제여인들의 슬픈 전설을 간직한 낙화암과 이를 추모하긴 위한 고란사가 있다. 백마강의 멋진 풍광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 여행을 마치며

이번 부여 여행에서 나의 마음을 움직인 백제의 유물은 <백제금동대향로>이다. 교과서에서 본 <백제금동대향로>의 모습에 끌려 이렇게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품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궁금했었다.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직접 만나본 <백제금동대향로>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고 정교하였으며, 봉황, 용, 악사, 신선, 현실 세계 동물, 상상의 동물 등이 어우러져 더욱 신비하게 느껴졌다. 한참을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.

부릉부릉~ 백제버스 여행을 마치며

이번 여행을 통해.....

내가 막연히 알고 있던 백제는 한 때 번성했으나 나당연합군에 패해 스러져간 작은 나라의 이미지였다. 그러나 이번 부여여행을 통해 백제가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고 정교한 기술력을 지닌 강건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그리고 그들이 꿈꿨던 이상사회도 어렴풋이나마 느껴볼 수 있었다. 백제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.

백제버스 여행은 끝나지 않았다. 다음 번에는 사비(부여)로 천도하기 이전의 도읍지인 웅진(공주)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 또 다른 백제의 멋을 만나볼 것이다.